국·사립대학 재정구조 현황 분석

윤 정 일 |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1. 서 론

21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서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이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의 창출이 주로 대학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인력 양성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임은 명백하고, 이에 따라 대학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대학재정 확보는 대학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의 토대가 되며,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은 양적 측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1999년 현재 4년제 대학 학생 수는 1970년에 비하여 10.8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며, 대학 수와 교수 수 역시 지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증가, 학생 취업률의 저하와 학생 1인당 시설 규모의 감소 등 교육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대학재정 여건은 대학과 국가, 민간기관 등 사회 전반의 협력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 중 4년제 정규대학에 주목하여 국·사립대학의 재정구조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현행 우리 나라 대학재정구조의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다.

2. 대학 현황

1) 대학 개황

대학의 재정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 나라 4년제 대학의 기본적 사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대학은

〈표 1〉 대학 및 대학인구의 증가 현황

연 도	대학수(교)	학생수(명)	교수수(명)	교수1인당 학생수(명)
1970	71	146,414	7,779	18.8
1975	72	208,986	10,080	20.7
1980	85	402,979	14,458	27.9
1985	100	931,884	26,047	35.8
1990	107	1,040,166	33,340	31.2
1995	131	1,187,735	45,087	26.3
1999	158	1,587,667	41,226	38.5

※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교육부, 교육통계연보(해당연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1997.

1999년 현재 158개교로서 1970년의 71개교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4년제 대학 학생 수는 146,414명에서 1,587,667명으로 10.8배 증가하였다. 교수 수 역시 1970~1999년 사이 33,447명 증가하여 다섯 배 이상 그 규모가 성장하였다. 대학교육은 지난 30년 간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970년 18.8명에서 1999년 38.5명으로 20명 가까이 증가하여 대학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교수 1인당 학생 수 국제비교

1999년 현재 우리 나라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약 38.5명으로 1992년의 28.7명에서 약 10명 정도 증가하였다. 1992년에서 1995년 사이는 약 2명 정도 줄어 미미한 정도의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보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1999년 우리 나라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표 2〉에 나타난 OECD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2배를 훨씬 넘는, 특히 일본의 13.5명에 비하면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표 2〉 교수 1인당 학생 수 국제비교 (1992~1996) (단위: 명)

연도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1996	38.5('99)	14.1	-	16.4	13.5	15.4
1995	26.3	14.2	-	17.5	14.2	5.7
1994	27.2	-	15.1	19.1	15.8	-
1992	28.7	15.0	14.8	-	16.4	12.9

※ 자료: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Education at a Glance*, 1995~1998.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9.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비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교육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1999년 현재 4,249$로 초등(1,463$) 및 중등교육단계(3,720$)와 비교하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OECD 선진국에 비하여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OECD 국가 평균인 10,444$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며, 스페인, 멕시코[1]와 함께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비 수준은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증대가 시급하다.

〈표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비교(1995) (단위: U.S.$)

국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국('99)	1,463	3,720	4,249
미국	5,371	6,812	16,262
영국	3,328	4,246	7,225
캐나다	-	-	11,471
독일	3,361	6,182	8,897
호주	3,121	4,899	10,590
스위스	5,893	7,601	15,685
스웨덴	5,189	5,643	13,168
일본	4,065	4,465	8,768
OECD평균	3,595	4,971	10,444

※ 주: '99년 우리 나라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비는 1999년 10월 환율(1,200원)을 적용함.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9;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대학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모색, 2000;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Education at a Glance*, 1998.

4) GDP대비 공교육비 구성비 국제비교

1999년 우리 나라의 GDP는 4,465,942억 원, 초등교육비는 67,984억 원, 중등교육비는 58,605억 원, 대학교육비는 11,421억 원이다. 같은 해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비를 보면 초·중등교육의 경우 2.8%, 고등교육의 경우 0.25%이다.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의 약 8.9%로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GDP 대비 총 공교육비 중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1)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995년 현재 스페인과 멕시코 각각 4,966$, 5,071$임.

비율은 우리 나라의 경우 8%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1/3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공교육비는 대개 초·중등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OECD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구성비가 낮은 것은 그 동안 초·중등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소요로 인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 확보를 수익자 부담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중등교육비와 고등교육비 간의 적정지출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표 4〉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비(1995) (단위: %)

국 가	초·중등교육비	고등교육비(A)	총 공교육비(B)	A/B
한 국('99)	2.8	0.25	3.0	8
미 국	3.5	1.1	5.0	22
영 국	3.8	0.7	4.6	15
캐나다	4.0	1.5	5.8	26
독 일	2.9	1.0	4.5	22
호 주	3.2	1.2	4.5	27
스위스	4.1	1.1	5.5	20
스웨덴	4.4	1.6	6.6	24
일 본	2.8	0.4	3.6	11
OECD평균	3.4	0.9	4.7	19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1999.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대학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모색, 2000.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Education at a Glance*, 1998.

3. 대학교육비 재원별 구성비

1) 국·사립대학 교육재원 비교

대학교육비의 재원구조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크게 다르다. 먼저 국립대학의 재원구조를 보면 1999년의 경우 국고부담이 57.5%를 차지하고, 학생부담이 42.5%를 차지한다. 학생부담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업료 4.4%, 기성회비 38.5%로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

사립대학의 재원은 크게 운영수입, 자본 및 부채수입, 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것은 운영수입으로서 총 수입의 89.6%나 된다. 사립대학 재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등록금으로서 총 수입의 61.8%를 차지한다. 그리고 재단전입금과 기부금은 각각 8%, 7.7%를 차지하며, 국고보조금은 3.5%에 지나지 않는다. 재단전입금이 8%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학 설립자로서의 법인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나라 국·사립대학 교육재원 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국고지원 정도이다. 국립대학은 국고지원이 학생부담의 1.4배인 반면 사립대학은 등록금의 5.7% 정도에 불과하다. 즉, 국립대학의 경우 재원의 절반 이상이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나, 사립대학은 재원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표 5〉 국·사립대학 재원구조 (단위: 억 원, %)

재원별	국립대학('99)		재원별		사립대학('9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액	33,251	100.0	총액		67,875	100.0
국고부담	19,100	57.5	운영수입	계	60,838	89.6
				등록금	41,921	61.8
학생부담	14,151	42.5		전입금	5,433	8.0
				기부금	5,207	7.7
수업료	1,472	4.4		국고보조금	2,377	3.5
				교육 부대수입	1,412	2.1
				교육 외 수입	4,489	6.6
기성회비	12,679	38.1	자본 및 부채수입		3,041	4.5
			전기이월자금		3,996	5.9

※ 주: 국립대학은 1999년 예산, 사립대학은 1998년 결산을 기준으로 함.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9; 교육부 내부자료, 2000.

2) 고등교육재원의 국제비교

1999년 현재 우리 나라의 4년제 국·사립대학 재원별

구성비는 정부지원인 공공부담이 30.5%, 등록금이 포함된 자체부담이 69.5%로 대부분 자체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에 비하여 공공부담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공공부담이 자체부담의 3~7배에 이르러 고등교육재원의 대부분이 공공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해 OECD의 공공재원 대비 민간재원의 평균을 살펴보면 75 : 25로서 고등교육재원이 정부예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대학의 자체부담에서 등록금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부담의 대부분은 등록금에 의한 것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학재원 확보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고등교육기관 재원별 구성비 국제비교 (단위: %)

구분		한국 (1999)	미국 (1995)	영국 (1993)	프랑스 (1993)	일본 (1993)
공공부담	계	30.5	39.0	75.6	88.2	49.2
	중앙정부	30.5	-	75.6	81.7	42.5
	연방정부	-	12.3	-	-	-
	주정부	-	24.1	-	-	-
	지방정부	-	2.6	-	6.5	6.7
자체부담 (등록금 포함)		69.5	61.0	24.4	11.8	50.8

※ 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국·사립대학에 한정하여 분석한 것임.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9; 교육부 내부자료, 2000.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on Statistics*, 1995.

4. 대학교육비 지출별 구성비

1) 국·사립대학의 지출 비교

대학재정의 지출은 크게 나누어 경상비와 자본경비 두 가지로 구분되며, 경상비는 다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진다. 인건비는 교비에서 지출되는 교직원의 인건비와 기성회비에서 지출되는 인건비의 합을 말한다. 운영비는 대학교육비 중 인건비와 자본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크게 나누어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연구비, 입시경비 등이 있다.

국립대학 교육비의 지출구성비는 1999년 경상비 76.1%, 자본경비 20.7%, 기타 3.2%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비 중 인건비가 50.5%로 가장 높고, 운영비와 자본경비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대학 교육비의 지출구성비는 1998년 경상비 61.6%, 자본경비 30.9%, 기타 7.5%이다. 세부항목별로는 경상비 중 인건비가 34.4%로 가장 높으며, 운영비는 27.2%로 자본경비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1999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인건비는 각각 50.5%, 34.4%로 국립대학의 인건비 비중이 약 15% 포인트 이상 높다. 운영비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별로 25.6%와 27.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본경비는 각각 20.7%와 30.9%로 사립대학의 자본경비가 약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다.

〈표 7〉 국·사립대학의 지출 구성비 (단위: %)

구분	국립대학('99예산)	사립대학('98결산)
경상비	76.1	61.6
(인건비)	(50.5)	(34.4)
(운영비)	(25.6)	(27.2)
자본경비(시설설비비)	20.7	30.9
기 타	3.2	7.5

※ 주: ( )안은 경상비 세부 내역임.

※ 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대학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모색, 2000.

2) 고등교육기관의 지출구성비 국제비교

1999년 현재 우리 나라 국·사립대학의 지출 구성비는 경상비 68.9%, 자본경비 25.8%, 기타 5.3%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42.5%, 운영비 26.4%, 자본경비 25.8%로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높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캐나다는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4%에 이르고 자본경비는 6~7% 정도

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자본경비는 외국에 비하여 4배 정도가 높고, OECD 국가에 비해 평균도 2배 이상 높다. 이는 우리 대학들이 시설투자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관계로 경상적 지출이 감소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표 8〉 고등교육기관의 지출구성비 국제비교 (1995) (단위: %)

구 분	한국('99)	미 국	영 국	캐나다	일 본	OECD평균
경상비	68.9	93.0	94.0	94.0	79.0	88.0
(인건비)	(42.5)	(55.8)	(42.3)	(67.7)	(52.9)	(60.7)
(운영비)	(26.4)	(37.2)	(51.7)	(26.3)	(26.1)	(27.3)
자본경비	25.8	7.0	6.0	6.0	21.0	12.0
기 타	5.3					

※ 주: ( )안은 경상비 세부 내역임.

※ 자료: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Education at a Glance*, 1998.

5. 대학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대학교육재원 및 지출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은 19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2]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 발전과 대학의 질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데 주목하고,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대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역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등 고등교육이 급속히 팽창하는 데 비해 대학교육 재원의 확충은 양적 팽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마련한 재원의 지출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육 재원과 지출에 있어서 주요 문제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이 매우 낮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 총 교육비 중 대학교육 재원 규모가 영세하다. 1999년 현재 우리 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비를 살펴보면 고등교육비가 초·중등교육비의 1/10에도 못 미친다. 또한 우리 나라 총 공교육비 대비 고등교육비는 8%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1/3 정도에 그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OECD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셋째, 국고지원 규모가 영세하다. 국가는 국립대학의 설립자이며, 전체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육성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초점은 보통교육에 있었고,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는 법적 근거에 있어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초·중등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책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양여금법,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등에 법제화되어 있다. 반면 대학재정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 7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로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다.[3]

넷째, 국·사립대학 간의 국고지원은 격차가 크다. 국·사립대학 모두 국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

2) 연도별 고등교육 진학률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70년 9.0%, '80년 17.0%, '90년 37.4%, '98년 84.5%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최근 더 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3) 송기창,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대학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모색, 2000. 4, pp.2~3.

기 때문에 공공재원에 의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공립대학의 3.5배에 달하는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금 수혜는 국·공립대학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부족한 재원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다섯째, 기성회 재원 의존도가 높다. 기성회 제도는 우리 나라 대학 회계의 특징적 제도로서 원래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 성격을 띠고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일반 등록금과 거의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9년 현재 국립대학의 재원 중 38.1%가 기성회비로 충당되며, 이는 학생부담의 약 90%에 달한다.

여섯째,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재정구조의 취약성이 문제가 된다. 현재 사립대학은 정부의 대학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이 지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법인 재정구조마저 취약하여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재단에서 전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수입에 대한 학교법인 전출금의 기여도는 1985년의 6.6%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0년 15.0%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그 후 계속 감소하여 1998년에는 6.9%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4]

일곱째, 지출 구성비에 있어서 자본경비의 과다 사용이 지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9년 현재 경상비는 OECD 선진국보다는 낮고, 자본경비는 그보다 높다. 이는 지나친 시설투자를 함의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이 시급한 시점에 계속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한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2) 대학교육재원 및 지출에 대한 개선 방안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 재원 확충의 시급성은 국·사립대학 모두에 해당한다. 대학교육재원 및 지출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대학재원 구조는 등록금 및 기성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고보조는 매우 미약한 현실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고보조는 총 수입의 3.5%에 불과하며, 국립대학 역시 재원의 상당 부분이 기성회비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교육의 궁극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국가의 대학재원 확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복지 관점에서도,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투자적 관점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재원 확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산·학연계를 활용한 재정확보 방안 모색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산·학협동은 학교와 기업체간의 협력을 전제로 양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화함으로써 교수 및 연구 양자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교육운영 방법이다. 대학은 새로운 지식, 정보 및 기술 창출에 필요한 연구비나 시설을 제공받고, 기업은 필요한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 받음으로서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5]

셋째, 병원회계를 활용하여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병원의 수익은 매우 높으며, 그것은 대학재원 확충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부속병원의 경우 수익 중 일부를 대학교육 재원으로 전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 1980학년도 이후 1996학년도까지 대학 운영수입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병원 운영수입이 전체 대학재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선진국이 대학병원 운영을 통하여 학교재원을 확충한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

4) 백성준, "사립대학 재정확보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대학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모색, 2000. 4, p.36.
5) 상게서, p.39.

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6]

넷째, 사립대학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전입금을 증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대학법인은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기준을 크게 변경하였으나,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센티브제 등의 도입으로 학교법인이 사립대학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일정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설설비에 대한 투자를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재정 지출구성비는 OECD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경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다한 시설투자로 인하여 경상비가 감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사립대학은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설투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투자정책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섯째, 국립대학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행 국립대학 예산·회계 제도는 국고회계와 기성회 회계의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어 경직성과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점을 지닌다. 국립대학 특별회계 제도는 양자를 통합 운영하여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 및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지원의 불투명성, 운영비 확보 수단으로서 등록금 인상 등의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6. 결 론

우리 나라 대학교육재정의 여건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는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대학교육 지표에서 OECD 선진국에 비해 후진의 상태에 있다.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으나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학생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재정 건실화를 위한 기본은 재정 총량 규모의 확충이라 하겠다. 대학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계 및 병원회계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국고지원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각각의 특성에 부합한 재정정책 확립이 필요하다. 국립대학의 경우 특별회계 제도의 도입·추진이,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의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국·사립대학의 재정구조 분석을 통한 적극적 재정지원정책으로 기초가 튼튼한 대학교육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8), "OECD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7. 12), "세계 속의 한국교육".

김두식(1996),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기본 방향과 내용", 『대학교육』, 제84호.

김병주(1998), "사립대학 재정의 구조와 문제 분석", 『고등교육연구』, 9(2).

김병주(1994), "교육비 분석에 근거한 대학납입금 차등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채옥(1999), "사립대학 입장에서 본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과 배분

6) 전게서, p.38.

정책", 「대학교육」, 제97호.

김태완(1998), "고등교육재정",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편, 서울: 하우동설.

김화진(1999),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배분의 정책 방향", 「대학교육」, 제97호.

나민주(1998), "대학재정 지원정책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나민주(1998),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대학교육」, 제92호.

부산대학교 국립대학 발전방안 연구위원회(1997), "국립대학의 현황 및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국립대학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

송광용 외(1998), "대학재정 국고지원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윤정일(2000),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윤정일(2000 봄), "사학재정의 확보 방안",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윤정일(1999. 12),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윤형원 외(1998. 10), "국립대학 특별회계법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RR 제98-6-165호.

이재복(1999), "국립대학 입장에서 본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과 배분 정책", 「대학교육」, 제97호.

한국교육행정학회(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8), "국립대학 재정운영 평가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88), "대학교육재정의 국제비교 연구".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1995~1998),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교육행정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University of Illinois 교육연구소 연구원과 사범대학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기획조정실장, 교육발전연구부장), 대통령교육개혁심의회 전문위원, 대통령교육정책자문회의 전문위원, 한국교육행정학연구회 회장, 한국교육재정 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와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사」,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의 이해」, 「교육행정학원론」, 「한국의 교육정책」 외 다수가 있다.